

#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 결정과 군사전략 목표

朴 昌 熙

(합동참모본부 군사협력과)

1. 서 론
2. 모택동의 남침계획 동의 배경 : 군사적 낙관주의
3. 한국전쟁 발발과 중국의 전략적 대응
4. 모택동의 전략적 계산과 한국전쟁 개입 결정
5. 소련의 군사지원 거부와 중국 지도부의 동요
6. 결 론

## 1. 서 론

알렌 화이트링(Allen Whiting)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 동기를 '안보'라는 패러다임(paradigm)으로 설명해 왔다.<sup>1)</sup> 그러나

1) 대표적인 연구로는 Allen Whiting, *China Crosses the Yalu*. (Stanford: Stanford

1980년대 후반부터 중국과 러시아에서 공개한 비밀해제자료에 입각하여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은 기존의 연구와 달리 그 동기를 '혁명'에서 찾고 있다. 그 결과 비록 최근의 연구가 새로운 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기존의 연구와 전혀 다른 패러다임(paradigm)을 제시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첸 지안(Chen Jian)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모택동은 아시아혁명을 추진함으로써 중국의 지위를 부활시키려는 열망에 사로잡혔으며, 한국전쟁에 개입한 동기가 이러한 중화사상을 부활시키려는 '혁명적 민족주의'(revolutionary nationalism)에 있었다고 한다.<sup>2)</sup>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놀랍게도 나는 인천에 상륙하기 한달 이전인 1950년 8월초 모택동과 북경지도자들이 한국에 파병할 의향을 가졌으며 중국의 군사적·정치적 준비가 그보다 한달 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한국전쟁에 개입하기로 결정한 이면에는 한 ~ 만 국경의 안정을 확보한다는 그 이상의 고려가 있었다. 모택동과 그의 측근들은 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영광

---

University Press, 1968) ; Melvin Gurtov & Byong-moo Hwang, *China under Threat : The Politics of Strategy and Diplomacy* (Baltimore :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1980) ; Anthony Farrar-Hockley, "A Reminiscence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in the Korean War," *The China Quarterly*, no. 98, June 1984, pp. 284-304 ; Russell Spurr, *Enter the Dragon : China's Undeclared War against the U.S. in Korea* (New York : Newmarket, 1988) ; Jonathan Pollack, "The Korean War and Sino-Korean Relations," Harry Harding & Yuan Ming, eds., *Sino-American Relations, 1945-1955 : A Joint Assessment of a Critical Decade* (Wilmington, Del. : Scholarly Resources, 1989).

- 2)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CWIHP Bulletin*, Issues 6-7, p. 41 ; Chen Jian, "Chinese Policy and the Korean War," ed. Lester H. Brume, *The Korean War : Handbook of the Literature and Research* (Westport : Greenwood Press, 1996), p. 199.

스러운 승리를 얻고자 하는 목표를 가졌다.<sup>3)</sup>

즉, 모택동은 한국전쟁에 개입하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한반도에서 미군을 축출한다는 '절대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안보는 물론 동아시아의 혁명을 추진하려 한 것으로 본다.<sup>4)</sup> 이러한 주장은 마치 '천하통일'과 같은 맥락에서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을 설명하려는 것으로 모택동의 한국전쟁 전략을 혁명전쟁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하는 견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택동이 한국전쟁 개입을 통해 혁명과 같은 절대적인 목적을 추구하였다는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물론 혁명이라는 동기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추종하는 신생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정치·경제적 불안정은 물론 안보적 불안에 시달리던 중국이 당장 혁명을 통해 중화주의를 복원하려 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헨트(M. Hunt)가 지적하고 있듯이 모택동의 혁명적 동기를 강조하는 주장들은 대개 중국공산당의 공식문서에 의존하여 그들의 정치적 선전과 이념적 슬로건(slogan)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 나온 것으로서 모택동의 의도가 실제보다 크게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sup>5)</sup>

왜 중국은 한국전쟁에 개입하기로 결정하였는가? 과연 중국의 지도자들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았는가? 그들이 설정한 개입 목표는 미군을 축출하고 한반도를 공산화하는 것이었는가, 아니면 단순히 한반도에서 전쟁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데 있었는가? 한국전쟁 개입을 주도

3)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CWIHP Bulletin*, Issues 6-7, p. 41.

4) Thomas J. Christensen, "Threats, Assurances, and the Last Chance for Peace: The Lessons of Mao's Korean War Telegrams," *International Security*, no. 17, vol. 1, Summer 1992, pp. 122-154.

5) Michael H. Hunt, "Beijing and the Korean Crisis, June 1950-June 1951,"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07, no. 3, Fall 1992, p. 477.

하였던 모택동은 어떠한 전략적 계산하에 한국전쟁에 임하였는가? 그러한 전략은 미국에 대한 완벽한 승리와 함께 한반도의 공산혁명을 기도하는 것이었는가?

필자는 우선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 원인과 모택동의 군사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의 상반된 전쟁개념, 즉 혁명전쟁과 국제전의 개념을 간단히 고찰함으로써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이 연구는 모택동이 김일성의 남침계획에 동의한 시점부터 한국전쟁 개입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을 세밀히 고찰할 것이며, 최근 제기되고 있는 '혁명 패러다임'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혁명전쟁과 국제전은 전쟁의 목적, 성격, 그리고 전쟁수행 전략면에서 다르다. 혁명전쟁은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전쟁으로서 "무장세력을 이용하여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의미한다.<sup>6)</sup> 혁명이 기존의 정부를 전복—또는 특정 계급을 타도—하고 권력을 장악하여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는 행위라면, 그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내적 통일을 이룸으로서 국내에 '영구적 평화(perpetual peace)를 수립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sup>7)</sup> 혁명전쟁에서는 타협이나 조건적인 항복은 있을 수 없다. 타협을 통해 권력을 나누어 가진다면 그것은 이미 혁명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혁명전쟁에서 패한 측은 협상이나 항복을 모색하기 보다는 스스로 망명을 택할 것이다. 결국 혁명전쟁이란 상대방에 대해 완벽한 군사적 승리를 추구하는 절대적 전쟁의 성격을 갖는다.

반면 국제전은 적에게 우리의 의지를 강요하기 위한 정치행위의 한 수단이다. 따라서 국제전은 적의 모든 군사력을 섬멸하는 것보다는 협상을 통해

6) John Shy and Thomas W. Collier, "Revolutionary War," edited by Peter Paret, *Makers of Modern Strategy: From Machiavelli to the Nuclear 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p. 817; 강성학, 『카멜레온과 시지프스: 변천하는 국제질서와 한국의 안보』, (서울: 나남, 1995), p. 403.

7) Raymond Aron, *Clausewitz: Philosopher of War*, Translated by Christine Booker and Norman Ston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3), p. 295.

<표 1> 혁명전쟁과 국제전의 비교

구 분	혁명전쟁	국제전
정치적 목적	타도(적의 무조건 항복)	협상 또는 타협(평화조약)
최종상태	영구적 평화 (perpetual peace)	조건적 평화 (conditional peace)
전쟁의 목표	절대적 목표	제한적 목표
전쟁수행	유격전 위주	정규전 위주
전쟁수행 사례	항일전쟁 중국내전	한국전쟁 개입

평화조약(peace treaty)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sup>8)</sup> 혁명전쟁이 적의 타도를 통해 ‘영구적 평화’를 추구한다면 국제전은 국가들간의 관계를 새로운 조건하에서 다시 설정함으로써 ‘조건적 평화’(conditional peace)를 지향한다. 따라서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협상과 타협을 통한 외교적 행위는 계속되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국제전은 제한전쟁의 성격을 갖는다.

이 글은 지금까지 밝혀진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결정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모택동을 비롯한 중국의 지도자들이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개입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추구한 전략은 무엇이었는지를 규명할 것이다. 만일 그러한 목적과 전략이 한국전쟁에 개입한 미군을 타도하고 한반도에 통일된 공산정권을 수립하는 절대적 성격을 갖는다면 첸 지안이나 장수광의 혁명전쟁 논리를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모택동이 미국과의 전면전을 회피한 채 오직 북한지역에 완충지대를 구축하기 위해 개입하였다면, 그리고 그의 전략이 제한된 목표하의 제한된 공격이었다면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은 혁명전쟁의 연장이

8) 물론 국제전에서도 절대적인 목적을 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의 전쟁에서 절대적인 전쟁에는 대개 혁명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었다. 나폴레옹 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이 그 예이다.

아니라 단순히 국제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 2. 모택동의 남침계획 동의 배경 : 군사적 낙관주의

모택동은 1950년 5월 김일성의 남침계획에 동의하였다. 그의 남침 동의는 한국전쟁의 주요한 촉발원인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결국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에 이어 중국이 개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 중·미대결의 빌미를 제공하고 맡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록 모택동이 김일성의 남침에 동의함으로써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결정은 미국과의 전면전을 불사한다거나 한반도 공산화에 적극 개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군사적 낙관주의(military optimism)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다.<sup>9)</sup> 즉, 그는 한국전쟁이 북한의 승리로 손쉽게 종결될 것이며, 미국은 개입하지 않거나 설사 개입한다 하더라도 전쟁이 한반도에 국한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1950년 4월초 김일성과 가진 회담에서 스탈린은 국제환경이 유리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김일성의 남침을 승인하였다.<sup>10)</sup> 이러한 결정에는 북한이 남한에 대해 신속하고 결정적인 승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미군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sup>11)</sup> 그

- 
- 9) 블레이니는 전쟁의 원인으로서 “극단적 낙관주의”(extreme optimism)를 지적하고 있다. Geoffrey Blainey, *The Causes of War*(New York: The Free Press, 1988), pp. 120-124.
- 10) Kathryn Weathersby, “To Attack, or Not to Attack? Stalin, Kim Il Sung, and the Preclude to War,” *CWIHP Bulletin*, Issue 5, p. 4, Document 1, Stalin’s Meeting with Kim Il Sung, Moscow, 5 March 1949.
- 11) 변화된 국제정치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국의 개입문제였다. 이에 관해서는 *Ibid.*, Document 4 Ciphred Telegram from Tunkin to Soviet Foreign Ministry, 14 September 1950 참조. 미국 불개입 가정이 중대한 오판이었다는 모택동의 진술에 대해

러나, 이 과정에서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모택동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였다. 남침문제에 대한 최종결정은 중국과 북한에 의해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중국측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쟁을 미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모택동은 1950년 5월 김일성으로부터 남침의사를 직접 듣기 전에 이미 그가 남침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1949년 7월부터 시작된 조선족 부대의 귀환은 김일성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북한이 무력으로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또한 1950년 5월 모택동은 김일성의 북경 방문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주중 북한대사 이주연에게 북한이 남침을 곧바로 시작할 계획이라면 김일성의 방문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는데,<sup>12)</sup> 곧이어 성사된 김일성의 방문이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그의 방문이 남침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비록 모택동이 정확한 남침날짜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남침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모택동의 우선순위는 한반도 혁명이 아니라 대만의 통일에 있었다. 그리고 대만의 통일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그는 군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던 인도차이나에 우선적으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한반도 혁명은 아직 그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미 모택동은 1949년 한반도의 통일은 중국의 혁명이 완수된 후에 하도록 권유함으로써 대만의 통일을 우선 완료한 후 김일성의 남침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었다. 따라서 비록 모택동이 김일성의 남침계획에 동의하였더라도 그것은 “내키지 않는 동의”였다.<sup>13)</sup>

서는 Dieter Heizig, "Stalin, Mao, Kim and Korean War Origins, 1950 : A Russian Documentary Discrepancy," *CWIHP Bulletin*, Issue 8, p. 240.

12) 「6·25 진상」, 『조선일보』, 1994. 7. 21.

13)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권, (서울 : 나남, 1997), pp. 249-255 ; Sergei N. Goncharov *et al.*, *Uncertain Partners*, p. 146.

왜 모택동은 자신의 의도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의 남침계획에 동의하였는가? 모택동의 동의는 ‘위(威)’, 즉 위험(risk)과 ‘기(機)’, 즉 기회(opportunity)의 측면에서 나온 복합적 계산의 결과였다. 우선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경우 중국이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위험은 미국의 개입 가능성 그 자체였다. 1949년 6월 한반도에서 철수한 미군이 남한을 돕기 위해 복귀한다면 전세가 남한에 유리하게 역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칫 미국이 대만 문제에 다시 개입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었다. 최악의 경우 미국이 북한을 봉괴시키고 한반도 전체를 석권하게 된다면 중국으로서 본토가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에 노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뿐 아니라 장차 미국과의 대결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1950년 중반이 되면서 모택동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물론, 1949년 말부터 1950년 1월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중국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더라도 장개석을 돕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고, 한반도와 대만을 그들의 방위선에서 제외시켰다. 미국은 1946년 프랑스와 베트남간의 전쟁 발발 이후로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인도차이나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없어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유화정책은 1950년 2월 중소동맹조약이 체결되자 곧바로 강경책으로 선회하였다.

미국은 애초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티토화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현재의 안보적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하면서까지 무한정 양보할 수는 없었다. 미국은 기존의 친불 중립적 태도를 바꾸어 보다 공세적인 인도차이나 정책을 전개하였다. 트루먼 행정부는 2월 인도차이나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정부를 인정하였으며, 4월에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고수한다는 내용의 NSC-64를 승인하였다.<sup>14)</sup>

14) NSC-64,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Indochina," February

또한 미국의 대만정책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1950년 1월 트루먼과 애치슨이 대만과 한반도를 방위선에서 제외시킨다고 선언하였으나 이제 미국의 정책은 대만 '포기'에서 '고수'로 변화하고 있었다.<sup>15)</sup> 한국전쟁 발발 직후 미국이 7함대를 파견하여 대만을 중립화한 조치는 미국의 대만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음을 가장 명확히 증명해 주고 있다.

김일성이 남침계획을 들고 와 동의를 요구한 시점은 바로 모택동이 적대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을 감지한 시점이었다. 5월 15일 북한 방문단과 남침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김일성이 미국의 개입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대신 "2~3만의 일본군을 파병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자, 모택동은 이에 반박하면서 "진짜 개입 위험이 큰 쪽은 일본보다 미국"이라고 강조한 적이 있다.<sup>16)</sup> 즉, 그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나타난 변화를 인식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이 개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전쟁에 미국이 개입한다면 최악의 경우 중·미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군사적 대결의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했다.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의 전쟁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미국과 전쟁에 돌입할 수 있는 상황은 더욱 아니었다. 국내에 산적한 정치·경제적 현안들은 차지고서라도, 중국은 대외적으로 인도차이나에서 호지명의 혁명전쟁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대만의 통일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해군·공군력 건설사업은 아직도 미진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미군을 맞아 싸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한반도에서의 안보적 이익이 최소한의 완충지대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북한의 김일성 정권의 존재 자체로 충분했다. 따라서, 모택동의 입장에서 볼 때 김일성의 남침은 불필요하게 영

27, 1950, *FRUS*, 1950, vol. 6, East Asia and the Pacific(Washington, D.C. : GPO, 1976), pp. 745-747.

15)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p. 117.

16) Sergei N. Goncharov *et al.*, *Uncertain Partners*, p. 146 : "모-김 북경 비밀회담", 『6·25 내막/모스크바 새 증언 : 16』, 『대한매일』, 1995. 6. 29.

향권을 확대하려는 ‘모험’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일성의 남침계획은 다른 한편으로 모택동에게 하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었다. 성공할 수만 있다면 한반도의 공산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만만치 않은 것이었다. 우선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지는 크게 약화될 것이며, 일본은 그들의 본토가 직접적인 위협에 처하게 됨으로서 공산주의 국가들에 저항하기보다는 타협을 시도하려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아시아 지역에 공산주의 혁명이 급속도로 확산됨으로서, 미국의 ‘포위’— 즉, 인도차이나, 대만, 한반도에서의 포위—에 대한 ‘반포위’ 뿐 아니라 ‘역포위’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유리한 환경 하에서 대만해방을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시아 공산혁명의 지도국으로서 과거 상실했던 옛 지위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미국이 개입하더라도 한국전쟁이 중·미간의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은 이러한 기회를 잡고자하는 모택동의 동기를 자극하였다. 모택동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미국이 또 다른 세계대전을 치를 준비는 되어있지 않다고 보았다. 더구나 미국의 정책은 아시아보다는 유럽 쪽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한국통일은 무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미국이 남한과 같은 작은 나라 때문에 3차대전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미국의 개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sup>17)</sup> 최악의 경우 미국이 개입하여 김일성의 남침이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전쟁이 한반도에 제한될 수 있다면 중국으로서는 ‘밑져야 본전’인 셈이었다.

김일성은 신속한 승리를 장담함으로써 모택동의 기회주의를 부채질하였다. 그는 남침시 “2주, 늦어도 2개월 이내에 남조선을 점령할 수 있다고 호언하였으며,<sup>18)</sup> 1950년 4월과 5월 스탈린 모택동과 각각 대면하면서 미

17) “6·25 진상”, 『조선일보』 1994. 7. 21.

18) Kathryn Weathersby, “To Attak or Not to Attak?”, p. 6, Document 2, Ciphared Telegram from Stykov to Vyshinsky, 3 September 1949.

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주장하였다. 비록 미국이 개입할 준비를 서두른다 하여도 전쟁이 신속하게 종결될 것이기 때문에 개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모택동은 스탈린이 동조한 상황에서 김일성의 이러한 판단을 믿지 않을 수 없었으며 장차 개입에서 비롯될 수 있는 위험(risk)에 대한 우려는 이처럼 '신속하고 손쉬운 승리 가능성에 의해 상쇄되었던 것이다.

소련이 대규모의 군사고문단을 파견하여 남침을 위한 군사력 증강에 직접 간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택동은 남침에 대해 더욱 낙관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었다. 물론, 스탈린이 4월에 이미 남침계획을 승인하였다는 사실은 모택동에게는 일종의 압력이었음에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뜸직한 후원자'가 뒤에 있다는 낙관적 판단의 근거로도 작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중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기로 결정한 직후 소련의 공군지원과 장비지원을 기대한 것은 이들이 스탈린을 후원자로서 믿고 의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모택동이 김일성의 남침계획에 동의한 것은 군사적 낙관주의 때문이었다. 한국전쟁은 당시 대만해방과 인도차이나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던 모택동의 전략적 구상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만일 미국이 개입할 경우 한국전쟁은 중국과 미국간의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택동은 한국전쟁의 승리 가능성에 운을 맡겼다. 김일성의 신속한 승리 장담, 스탈린의 주도면밀한 준비, 한국전쟁이 제한전이 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승리할 경우 얻게 되는 전략적 이점으로 인해 모택동은 낙관주의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비록 모택동이 한반도 공산화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장 대만과 인도차이나를 우선시하는 모택동의 전략 구도상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할 경우 병력을 파견하여 돕겠다고 약속하였더라도 그것이 미국과 '전면전'을 불사한다던가 또는 한반도의 공산화를 책임지겠다는 의미를 내

포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의 남침동의를 전적으로 한반도의 전쟁이 제한전쟁이 될 것이며 미국과의 전면적인 군사적 대결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었다.<sup>19)</sup> 즉 모택동의 한국전쟁 전략은 그 출발부터가 '제한적'인 것이었다.

### 3. 한국전쟁 발발과 중국의 전략적 대응

#### (1) 한국전쟁 초기 중국의 전략상황 인식

한국전쟁 발발 직후 미국의 즉각적인 군사개입은 모택동의 전략구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개입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즉각적인 군사적 개입에 더하여 대만 중립화 조치는 모택동 뿐 아니라 스탈린의 예상을 크게 빗나간 것이었다. 모택동에게 한국전쟁은 일순간에 한반도에 국한된 사태가 아니라 자칫 중국을 전략적으로 커다란 곤경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위기로 다가오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6월 27일 트루먼이 제7함대를 파견하여 대만해협을 중립화하기로 한 결정은 당장 중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대만해방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택동이 가장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의 제7함대 파견에 대해서는 단순히 중국의 대만통일 노력을 무산시키고 중국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어 분노를 일으켰던 정도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모택동의 전략적 계산을 무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중·미관계는 1949년 10월 모택동의 일변도 외교선언으로 급속히 대결구도로 치닫고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 중국의 입장에서 인도차이나, 대만, 한반도는 중·미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19) Melvin Gurtov and Byong-moo Hwang, *China under Threat*, p. 56.

함께 중국을 지리적으로 포위 가능한 전략적 지대로 부상하고 있었다. 트루먼의 제7함대 파견 결정은 세 곳의 전략적 지대 가운데 하나인 대만을 미국이 점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미국이 한국전쟁을 통해 한반도 전체를 장악할 경우 중국은 전략적으로 포위됨은 물론 양면에서 협공을 당할 수 있는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은 이제 미군이 개입한 한반도 전쟁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중국지도자들은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이 아시아 전체에 미칠 파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려하였다. 첫째 그들은 한반도 다음은 인도차이나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주은래는 6월 28일 미국이 개입한 목적은 “대만, 한반도, 필리핀, 베트남을 공격할 구실을 만드는데 있다”고 하였으며,<sup>20)</sup> 8월 26일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미국은 한반도를 진압한 다음 틀림없이 베트남과 다른 식민지 국가들에게로 방향을 돌려 억압하려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sup>21)</sup> 10월말 고강은 미군이 한반도 전역을 차지할 경우 “미군이 국민당을 무장시켜 조선·인도차이나를 점령하고 나아가 중국까지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sup>22)</sup>

둘째 중국지도자들은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대만 해방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보았다. 한반도 전역이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갈 경우 미국은 대만 점령을 기정사실화 할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은 전략적으로 대만과 한반도 양면에서 포위되어 협공을 받게 됨으로서 대만공격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적어도 대만 해방과 관련하여 한국전쟁의 결과는 중국에

20) Man-Ho Heo, “From Civil War to an International War : A Dialectical Interpretation of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4, no. 2, Summer 1990, p. 323.

21) “Zhou Enlai’s Speech at the Central Military Committee’s Enlarged Meeting, 26 August 1950,” Shuguang Zhang and Jian Chen, eds., *Chinese Communist Foreign Policy and the Cold War in Asia* (이하 *CCFP*) (Chicago : Imprint Publications, 1996), p. 158.

22) “중국군의 대공세”, 『6·25대막 / 모스크바 새 증언 : 16』, 『대한매일』, 1995. 6. 23.

게 사활적인 것이었다.

중국지도부는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유사시 한국전쟁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표명하고 있었다. 주은래는 7월 2일 주중 소련대사 로신에게 중국지도부가 작성한 한반도의 정치·군사 상황에 관한 평가를 소련정부에 전달하도록 요청하였다.<sup>23)</sup> 그는 군사적 조언을 제공하였는데, 거기에는 서울 방어를 위해 인천 등 인접지역의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미국이 38선을 넘어올 경우 북한군으로 가장하여 전투에 참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모택동은 8월 4일 중국공산당 정치국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

만일 미국제국주의자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면 그들은 더욱 건방진 태도를 보일 것이고 우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북한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그들에게 의용군을 보내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 시기는 후에 결정될 것이지만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sup>24)</sup>

또한 모택동은 8월 19일 가진 유단과의 회담에서도 미국이 30개 이상의 사단을 추가로 투입할 경우 중국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미군을 분쇄하여야만 제3차대전을 막을 수 있다고 함으로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였다.<sup>25)</sup>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었던 것은 중·미간의 전쟁이 당장 전면전으로 비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새빈 체이스(Sabin Chase)라고 알려진 상해의 한 저널리스트는 9월 5일 홍콩 주재 미국총영사 윌킨슨에게 편지를 보내 최근 주은래에 의해 수집되었던 회의의 내용을 전달한 적이 있다. 당시

23) "중국의 개입", 『6·25내막/모스크바 새증언』, 『대한매일』, 1995. 6. 14.

24) *CCFP*, p. 157, fn. 17.

25) "중국의 개입", 『6·25내막/모스크바 새 증언 : 16』, 『대한매일』, 1995. 6. 14.

주은래는 만일 북한이 만주 국경으로 밀리게 될 경우 중국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중국은 적이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중국 국경 밖으로 나가 적과 싸우겠다”고 하면서 “미국이 한국에서 뭔가를 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30개 사단이 필요할 것이며 중국에서 뭔가를 하고자 한다면 300개 사단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sup>26)</sup> 또한 모택동은 9월 22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것을 지켜본 뒤 “현재 남조선에서 미군의 군사활동을 보면 그곳에서 장기적인 대규모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하였다.<sup>27)</sup> 이와 같은 중국지도부의 언급은 한국전쟁이 당장 중·미간의 전면전으로 비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은 한반도 상황이 역전될 경우 미국의 군사적 승리를 막기 위해 개입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시기는 대략 미군이 38선을 돌파하는 시점이 될 것이라는 복안이 마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8)</sup>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비록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혁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역전되어 중국이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란 점이다. 즉 장차 미국이 한반도를 석권함으로써 야기되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 (2) 중국의 대응 : 병력이동 및 동북변방군 창설

이러한 상황에서 모택동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29)</sup> 무엇보다도 우선 전장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26) “The Council General at Hong Kong to the Secretary of State,” *FRUS*, 1950, vol. 7, Korea, p. 698.

27) “『북지원』 키우는 북경”, 『6·25내막/모스크바 새 증언: 16』, 『대한매일』, 1995. 6. 16.

28) Russell Spurr, *Enter the Dragon: China's Undeclared War against the U.S. in Korea, 1950-51* (New York: Newmarket Press, 1988), pp. 68-69, 78.

급선무였다. 중국과 북한은 1949년 10월 6일 정식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북한은 이주연을 북경주재 북한대사로 파견해 놓고 있었다. 그러나 평양주재 중국대사로 임명된 예지량은 신병문제로 인해 아직 평양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어 중국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6월 30일 주은래는 인민해방군 서남군구 정보국장이었던 시성문을 불러 북한에 들어가 김일성과 접촉을 유지하고 전장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주은래는 시성문에게 정부참사관 임시대리라는 직책을 부여하고 “양국의 당·군간의 연락을 취하고 그때그때 전선변화를 포착·이해하는 것이 공관이 맡게 될 주요 임무”라고 알려주었다. 시성문 일행은 7월 8일 북경을 출발하여 10일 평양에 도착, 곧바로 대사관 업무를 개시하였다.<sup>30)</sup>

인민해방군의 부대 재배치도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7월 2일 주은래는 미국이 38선을 돌파할 경우에 대비하여 심양지역에 3개군 총 12만명의 병력을 집결시키겠다는 의향을 스탈린에게 전달하였다. 스탈린은 5일 중국측 병력이 배치될 경우 이들에 대해 공중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13일 그는 다시 전문을 보내와 중국군이 배치될 경우 “이 병력들에 대한 공중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제트전투기 1개 사단 124대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sup>31)</sup>

7월 7일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한국전쟁에 대처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중남부지역에 위치한 제13병단 이하 3개 군단과 3개 포병사단을 7월 말까지 한만국경을 가로지르는 압록강 일대에 배치할 것을 결정하였다.<sup>32)</sup>

29)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pp. 134-135.

30) 시성문, 조용진 『중국인이 본 한국전쟁 : 판문점 담판』, 윤영무 옮김 (서울 : 한백사, 1991), p. 95.

31) “중국의 개입”, 『6·25내막/모스크바 새 증언 : 16』, 『대한매일』, 1995. 6. 14.

32) “Mao Letter to Nie Rongzhen, July 7, 1950,” Sergei N. Goncharov *et al.*, *Uncertain Partners*, p. 271 ; Hai-Wen Li, “How and When Did China Decide to Enter the Korean War?” trans. Jian Chen,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8, no. 1, Spring

그리고 이 부대들을 모체로 하여 동북변방군(NFDA) —나중에 중국인민의용군(CPV)으로 재편됨—을 신설하기로 하고 제3야전군 부사령관 속유를 동북변방군 사령관 겸 정치위원에 임명하기로 하였다.<sup>33)</sup> 이 결정은 10일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되었고 13일에는 명령으로 작성되어 하달되었다. 동북변방군의 임무는 “동북 국경을 방어하고 필요시 북한인민군의 전쟁작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만주에 위치하고 있던 제15병단 사령부가 제13병단의 새로운 사령부로 전환되었으며, 전 15병단 사령관 등화는 13병단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당시 동북지역의 당무와 군사문제를 책임지고 있던 고강이 이들 부대에 대한 보급지원 임무를 맡았다. 제13병단 예하 제38, 39, 40, 42군과 제1, 2, 8포병사단은 총 225,000명 이상의 규모로서 8월 4일부로 만주지역으로의 이동을 완료하였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최초 동북변방군에게 9월 10일까지 전투준비를 갖추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고강은 8월 13일 열린 군단-사단장급 지휘관 회의에서 이것이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모택동은 18일 고강에 전문을 보내 9월말까지 동북변방군의 전투준비를 확실하게 완료하도록 지시하였다.<sup>34)</sup>

한반도 현황에 대한 평가는 8월말이 되면서 비관적으로 나타났다. 8월 26일 주은래는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반도 위기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한반도를 단기간내 ‘해방’할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으며 장기간의 어려운 투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진단한 뒤, 중국은 전세가 역전될 상황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튿날 모택동은 동북변방군을 강화하기로 결심하고 팡덕회에게 현재의 4개군 외에 12개군을 더 집결시키도록 지시하였다. 모택동의 지침에 입각하여 주은래는 8월 31일 군사회의를 주관하고 기존 제13병단으로 구성된 동북변방군에 제 9,

1994, pp. 86-87.

33) *CCFP*, p. 156, fn. 15 참조. 이 때 속유는 후에 신병으로 인해 이 직위를 맡을 수 없었다. 따라서 동북변방군 사령부는 구성되지 못하였고 대신 인민지원군 사령부가 편성될 때까지 동북변방군은 제13병단 사령부에서 직접 지휘하였다.

34) “Telegram, Mao Zedong to Gao Gang, 18 August 1950,” *CCFP*, p. 158.

19병단을 추가함으로써 총 11개군, 약 700,000명 규모로 증강하기로 결정하였다. 9월 9일 군사위원회는 산동의 제9병단과 서북지역의 제19병단으로 하여금 각각 천진-부곡 철도선과 요녕-해주 철도선 일대로 이동하도록 명령하였고, 유사시 철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만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sup>35)</sup>

8월 26일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시 등화는 임표를 통해 모택동에게 한반도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는 북한의 급속한 남진과 보급선의 확대 그리고 공백상태가 된 후방을 대단히 위험한 것으로 평가하고 “맥아더가 서울이나 평양부근에서 상륙작전을 감행함으로써 반격을 취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sup>36)</sup> 모택동은 전적으로 등화의 판단에 동의하고, 김일성과 스탈린에게 전문을 보내 미군의 상륙작전 가능성을 경고하였다. 9월 초에는 고강이 낙동강 전선에서의 교착상태에 대해 보고하면서, 북한이 “남한을 통일할 기회는 이미 지나갔으며, 김일성의 군사행동은 처참하게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sup>37)</sup> 이에 따라 모택동은 9월 9일 동부군구사령부 예하의 제9병단으로 하여금 압록강 지역으로 전개할 준비를 갖추도록 지시하였다.

9월 중순부터 중국지도부는 한국전쟁 개입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9월 1일 주은래는 북한에서 연락업무를 담당하던 시성문을 북경으로 불러 한반도 전황을 듣는 자리에서 “만일 정세가 돌변하여 우리가 조선전쟁에 파병해야 할 경우 어떤 곤란이 있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9월 17일 시성문이 북한에 돌아가기 위해 심양에 들렀을 때 고강은 모택동에게서

35) Michael M. Sheng, “Beijing’s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 A Reappraisal and New Documentation,”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9, no. 2, Summer 1995, pp. 300-301.

36) Yao Xu, *From Yalu River to Panmunjom* (Beijing : People’s Press, 1982), pp. 307-310. Quoted from Hao Yufan and Zhai Zhihai, “China’s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 History Revisited,” *The China Quarterly*, vol. 121, p. 102.

37) Hao Yufan and Zhai Zhihai, “China’s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Revisited,” p. 102.

<표 2> 중국인민해방군의 부대이동 현황

시 기	남중국	동중국	호남-하북	산둥	동북(만주)	한반도
5월-6월 중순	39, 40	20, 26, 27	38, 50, 66		4야전군, 42	
8월초-9월 중순		20, 26	50, 60	27	38, 39, 40, 42	
9월 중순-10월 중순				27, 39, 66, 26	38, 39, 40, 42, 50, 20	
10월 중순-10월말				26, 27	20	38, 39, 40, 42, 50, 66

※ 출처 : Allen Whiting, *China Crosses the Yalu*, p. 119. 단 제39군의 이동은 최근 공개된 중국측의 자료를 참고하여 수정하였다. (단위 : 군(軍))

은 서신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사태가 과병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으니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고 써 있었다.<sup>38)</sup>

한편 모택동은 한반도 전세가 역전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8월말 중국을 방문한 이상조 일행에게 낙동강 전선이 교착된 후 미군의 대응이 심상치 않음을 지적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장기전에 대비할 것과 당장 미군의 상륙작전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조언을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모택동은 미국이 북한군을 현 전선에 묶어 놓고 후방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북한은 충분한 예비전력을 확보하여 서울-제물포, 평양-진남포 지역의 경계를 강화하도록 권고하였다.<sup>39)</sup> 그러나, 김일성은 이러한 모택동의 충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낙동강 전선에 대한 기존의 전면공세를 계속했다.<sup>40)</sup>

38) 시성문, 조용진, 『중국인이 본 한국전쟁 : 관문집 담판』, pp. 90-92. 물론 반대의견도 있었다. 2일 임표는 시성문에게 “과병을 안하고 그들(북한군)로 하여금 산에 들어가 유격전을 하면 어떻겠소”라고 질문을 하였다.

39) Sergei N. Goncharov, et al., *Uncertain Partners*, p. 163 : 「로신이 스탈린에게 보낸 1950년 9월 3일자 전문」, 예프게니 바자노프, 『한국전쟁의 전말』, p. 110.

9월 15일 실시된 인천상륙작전은 상륙작전의 결작으로 평가될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크로마이트 작전’(Operation Chromite)으로 명명된 이 작전은 미 제10군단이 주축이 되어 인천에서 상륙한 다음 경인지구를 확보하고, 이후 경춘 도로를 따라 진격하여 적의 병참선 및 퇴로를 차단한다는 계획하에 진행되었다. 유엔군은 18일 김포, 19일 영등포를 장악하고 수원방면으로 진격하여 서울 수복과 적 퇴로를 차단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하였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해 한반도 전세는 완전히 뒤집어졌으며 주도권은 유엔군이 장악하게 되었다. 9월 16일부터는 미 제8군의 주도하에 낙동강 전선으로부터 총 반격이 실시되었다. 9월 28일 유엔군은 서울을 수복하였고 38선 이남의 북한군은 궤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스탈린은 인천상륙작전이 갖는 전략적 심각성을 파악하고 9월 18일 소련 군사고문단장인 바실리에프(Vasiliev)와 주 북한 대사 스티코프(Shtykov)에게 낙동강 전선의 병력을 서울 근처로 재배치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인천상륙작전을 낙동강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의 주의를 돌리려는 유엔군의 기만작전으로 간주하고 오히려 낙동강 전선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할 필요성을 느껴 스탈린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불안을 느낀 스탈린은 긴급히 사하로프(M. Sakharov) 장군—일명 메트베예프(Matveyev)—을 평양에 특사로 파견하여 스티코프와 김일성에게 즉각 공격을 중지하고 후방으로 철수하여 서울을 방어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은 9월 25일에 가서야 공세를 포기하고 방어로 전환할 것을 결심하였으며, 결국 철수시기를 놓침으로서 궤멸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 (3) 김일성의 지원요청과 중국의 개입 조건

이제 38선에 다다른 유엔군의 향방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운명을 좌우할

40) 김일성은 모택동의 권고를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 사실을 철저하게 비밀에 부쳤다.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p. 273, fn. 85.

중대한 사안으로 등장하였다. 미국이 38선을 넘어 계속 진격하기로 결정할 경우 북한으로서는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 북쪽에 잔류하고 있던 북한 인민군은 사실상 저항할 능력이 없었으며 전쟁은 단기간에 종료될 것이 확실했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30일 스탈린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 “적이 38선을 돌파할 경우 소련으로부터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받고자 하며” 만일 소련의 군사적 개입이 불가능할 경우 중국과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로 하여금 국제지원군을 결성해 도와줄 것을 호소하였다.<sup>41)</sup>

김일성의 암호전문은 9월 30일 23시 30분에 도착하여 10월 1일 새벽 12시 35분에 해독되었고 1시 45분에 타이핑되어 2시 50분에 스탈린의 별장에 도착하였다. 스탈린은 이 전문을 보고 나서 새벽 3시 정각에 모택동과 주은래에게 중국의 개입을 요청하는 전문을 발송하였다. 스탈린은 이 전문에서 만일 가능하다면 “즉시 5개 내지 6개 사단을 38선 근처로 보내서 북한 동지들이 중국군의 보호하에 38선 이북에서 전투 예비대를 재조직하고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중국이 스탈린과 김일성으로부터 군사적 개입요청을 받은 것은 이와 같이 인천상륙작전 후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진 급박한 상황에서였다. 동시에 모택동은 직접 북경으로 찾아온 박헌영으로부터 개입을 요청하는 김일성의 편지를 접수하였다. 모택동은 한반도가 미국의 영향력 하에 놓일 경우 인도차이나와 대만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유사시 한국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개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조건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첫째는 한국전쟁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중국의 군사적 개입은 한반도의 전쟁이 제한전쟁이 될 것이라는 가정 내에서만 유효한 것이었다. 스탈린이 미국의 군사개입이 없으리라는 자신을 가졌을 때 비로소 김일성의 남침계획에 동의할 수 있었다면, 중국은 미국이 개입하더라도 한반

41) 그리고 다음날인 10월 1일 김일성과 박헌영은 모택동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는 긴급한 전문을 발송하였다.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p. 172.

도에서 대규모의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에 남침에 동의하였다.<sup>42)</sup> 인천상륙작전이 감행된 직후인 9월 18일에도 주은래는 미국, 영국, 프랑스가 한국에서 장기적인 대규모 전쟁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중국지도부가 한국전쟁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표명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이 한반도에 국한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둘째로 모택동의 개입은 소련의 적극적인 군사적 지원 하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중국군은 무기와 장비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공군력은 전무한 상황이었으며 1950년 2월이 되어야만 비로소 일부 공군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중국측에서 보관하고 있는 모택동이 스탈린에게 보낸 것으로 되어있는 10월 2일자 전문에 의하면 모택동은 중국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한 후 소련이 제공하는 무기가 도착할 때까지 방어적 전쟁을 수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무기가 제공되지 않으면 싸우지 않겠다”(No weapon, no action)는 일종의 압력이자 소련의 지원을 당연시하고 있는 기대감의 표시였다.<sup>43)</sup> 또한 당내부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전쟁 개입결정이 가능했던 것은 소련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이 제공될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었다.<sup>44)</sup>

셋째 모택동의 개입은 최악의 순간이 되어야 했다. 중국지도부가 한국전쟁의 개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언제 개입해야 하는지는 정확히 언급된 바 없다. 낙동강 전선이 교착되면서 전세가 역전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개입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채 그 가능성만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시점이 한반도 전쟁의 상황이 ‘확실하게 역전되는 순간’이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그 시점은 미군이 북한의 공세를 꺾고 38선 돌파하여 북진하는 순간이었다. 즉 그 시점은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42) “무르익는 중국군 참전”, 「6·25내막/모스크바 세 증언: 16」, 『대한매일』, 1995. 6. 21.

43) Sergei N. Goncharov, *et al.*, *Uncertain Partners*, p. 179.

44)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p. 200.

소멸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다.<sup>45)</sup>

이제 한국전쟁의 향배는 전쟁 개입 여부를 놓고 이루어지게 될 중국지도부의 정책결정에 의해 좌우될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 여부는 앞으로의 중·미관계를 설정하게 될 새로운 출발점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중·미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어찌면 중국의 개입은 과거 미국에 대한 적대적 이미지에 의해 이미 조건지워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4. 모택동의 전략적 계산과 한국전쟁 개입 결정

##### (1) 상이한 두 개의 증거와 진실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문서는 10월 1일 스탈린의 개입요청에 대해 10월 2일 모택동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이다. 1987년 중국에서 공개한 10월 2일자 모택동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은 중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서, 학계에서는 이 전문으로 인해 중국이 미국과의 충돌 위험성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sup>46)</sup> 그러나 1990년대 초반 러시아에서 공개한 10월 2일자 전문은 그와 정 반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모택동이 제3차 대전을 우려하여 개입약속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날짜

45) Russell Spurr, *Enter the Dragon*, p. 68. 8월 7일 주덕이 소집한 회의에서 팡덕회는 "중국은 오직 북한의 존재가 직접 위협받게 될 경우에만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에 간여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46)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pp. 175-177 ; Sergei N. Goncharov et al., *Uncertain Partners*, pp. 177-178 ; Michael H. Hunt, *Crises in U.S. Foreign Policy*, p. 207-209.

로 된 정 반대되는 내용의 두 전문으로 인해 당시 중국의 태도에 대한 해석상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바 우선 이 문제를 정리한 다음 중국의 한국전쟁 결정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중국에서 공개한 문서는 한국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모택동은 미군과 한국군에 대항하여 싸우는 북한동지들을 돕기 위해 의용군이라는 이름 하에 중국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당면한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데, 하나는 미군을 섬멸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미국이 중국에 선전포고를 할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한반도의 미군—특히 미 제8군—을 섬멸할 수만 있다면 전반적인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다. 비록 미국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선전포고를 한다고 해도 전쟁이 대규모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며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군을 섬멸하지 못하고 전선이 교착될 경우에는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또한 미국이 중국에 선전포고를 할 경우에는 더욱 심각해진다. 중국은 경제제전에 곤란을 겪을 것이며 민족부르주아의 불만이 팽배해질 것이다. 현 상황에서 중국은 이미 남만주 지역으로 이동한 12개의 사단을 북한지역으로 보낼 것이지만 최초 단계에서는 소련의 무기지원을 기다리면서 방어전술을 사용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미군 전체를 즉각 섬멸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 그러나 중국은 적보다 4배의 병력과 1.5 내지 2배의 화력을 동원하여 적 부대를 완벽하고 철저하게 파괴하도록 할 것이다. 12개 사단 외에 중국은 다른 24개 사단을 투입하여 제2제대와 제3제대를 구성할 것이다.<sup>47)</sup>

러시아에서 공개한 문서는 중국측의 문서와 정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7)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pp. 175-177.

중국은 원래 적이 38선을 넘어 북으로 진격해 올 경우 한국동지들에게 지원군 몇 개 사단을 파병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이를 검토한 끝에 이러한 조치가 극히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로 중국군의 장비가 극도로 빈약하여 수개 사단을 파병한다 하더라도 적을 이길 수 없다. 둘째 중·미간의 대결은 소련까지 참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전쟁은 대규모로 확산될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동지들이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파병을 하지 않는 것은 한국동지들에게 매우 유감이다. 그렇지만 파병하였다가 패배할 경우 중·미대결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중국 내부의 건설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자제하면서 적과 본격적인 전쟁에 대비하여 부대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북한은 패배를 감내하면서 빨치산 전쟁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최종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곧 중앙위원회가 소집될 것이다. 이것은 잠정적인 전문이다. 이 문제에 관해 스탈린과 상의하고 싶다. 필요시 즉각 주은래와 임표동지를 보내 상의하도록 하겠다.<sup>48)</sup>

1987년 중국측의 전문이 공개되면서 한국전쟁 역사가들은 이 전문을 중국지도부, 특히 모택동이 1950년 10월 초 한국전쟁에 적극 개입할 의사를 갖고 있었으며, 미국에 대해 완벽한 승리를 추구하려 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삼고 있다. 이 전문에는 총 36개 사단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한반도 내의 미군을 섬멸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러시아의 문서가 공개되면서 중국측 문서에 대한 진위의 논란이 일었다. 만수로프(A. Mansourov)는 중국측의 전문과 동일한 전문이 러시아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러시아에서 공개한 로신이 스탈린에게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

48) Alexandre Y. Mansourov, "Stalin, Mao, Kim, and China's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pp. 114-116. 이 전문을 타전한 로신은 모택동이 그간 자주 언급해 온 파병의사를 반복한 것으로 그 이유는 북한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는 의견을 첨부하고 있다. Evgueni Bajanov, "Assessing the Politics of the Korean War, 1949-51," *CWHP Bulletin*, Issues 6-7, p. 89.

10월 2일자 전문에는 중국측 문서의 내용과 반대로 모택동이 미국과의 충돌을 우려하여 개입하지 않으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sup>49)</sup> 그리고 그는 중국측의 전문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쉐지화(Shen Zhihua)는 조작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중국측의 전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결과 모택동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이 확실하며,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측의 두 전문이 모두 진본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만 중국에서 공개한 전문은 발송날짜와 경로를 알게 해 주는 관리들의 서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모택동이 이 전문을 작성하였으나 발송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즉 10월 1일 스탈린의 전문을 받고 모택동은 즉각 개입의사를 담은 전문을 작성하였으나 대부분의 중국지도자들이 한국전쟁 개입에 반대함으로써 발송을 하지 못하고 보관하였다.<sup>50)</sup> 대신 모택동은 로신을 불러 “현재로서는 개입이 곤란하다”는 중국의 입장을 구두로 설명해 주었고, 로신은 이를 요약하여 자신의 의견과 함께 현재 러시아에서 보관하고 있는 전문을 발송하였다. 따라서 모택동이 자필로 작성한 메모는 중국측에 남아있는 반면 러시아에서는 받아볼 수 없었고, 모택동이 로신에게 구두로 전달한 메시지는 문서화되지 않음으로서 중국측에서 보관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쉐지화의 주장이다.

이 두 문서를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중국의 개입이 제한전쟁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입의사를 표명한 중국측의 문서에서는 미국이 선전포고를 하더라도 전쟁이 대규모로 확대되지 않을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소련측의 문서에서는 전쟁이 대규모로 확산되어 제3차대전으로 비화할 것이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것은 모택동의 개입결정에 가장 큰 영

49) Alexandre Y. Mansourov, “Stalin, Mao, Kim, and China’s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pp. 95-100.

50) Shen Zhihua, “The Discrepancy between the Russian and Chinese Versions,” *CWIHP Bulletin*, Issue 8, pp. 237-242.

향을 미친 요인이 바로 전쟁이 한반도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다.

둘째는 소련의 군사적 지원문제이다. 중국측 문서에서 모택동은 최초 방어전술을 구사하다가 소련의 무기가 지원된 후 본격적으로 전투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즉 개입하더라도 유엔군에 대한 반격은 '소련의 무기 보급이 이루어져' 완벽하게 장비를 갖춘 후에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련측 문서에서는 비록 현재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정이 이루어졌지만 최종 결정을 위해 주은래를 보내 상의할 의향을 비춤으로서 소련의 지원여부에 따라 개입할 수도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모택동의 개입결정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소련의 군사적 지원 여부였음을 또 다시 입증해 주고 있다.<sup>51)</sup>

이상의 논의로부터 일단 중국은 10월 2일 잠정적이지만 한국전쟁에 개입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기존의 중국측의 문서에 근거한 주장들, 즉 중국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하였다는 주장과 다른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언급하였다. 이제 구체적으로 중국지도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분석하기로 한다.

## (2) 중국지도부의 한국전쟁 개입 반대

10월 1일 중국의 지도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탄생 1주년 기념식을 서둘러 파하고 스탈린과 김일성으로부터 받은 긴급 군사지원 요청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sup>52)</sup> 중앙비서회의가 소집되어 모택동, 주덕, 유소기, 주은래가

51) 이 같은 사실은 앞 절에서 결론으로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가운데 두 가지, 즉 전쟁의 제한성과 소련의 지원이라는 조건과 일치한다.

52) 김일성과 박헌영은 10월 1일 모택동에게 파병을 요청하는 편지를 작성하였고, 박헌영은 이 편지를 직접 북경에 가서 전달하였다. Hai-Wen Li, "How and When Did China Decide?" p. 809. 이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CCFP*, p. 161, fn. 24 참조.

참석하였다. 개입문제에 대한 의견일치를 볼 수 없게 되자 이들은 다음날 확대중앙비서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모택동은 이 회의 직후 8월부터 심양에서 동북변방군을 책임지고 있는 고강에게 긴급전문을 타전하여 즉각 북경으로 오도록 지시하였다. 동시에 그는 등화에게 동북변방군이 “언제든 작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하였다.<sup>53)</sup>

10월 2일 오후 확대회의에서는 전날 모였던 4명과 고강, 섭영진이 참석하였다. 모택동은 한국전쟁에 시급히 개입해야 하며, 문제는 개입여부가 아니라 언제 누구의 지휘하에 개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54)</sup> 거기 모인 지도자들은 일단 10월 15일을 중국군이 행동을 개시할 날로 잠정합의하였다. 총 사령관 선정 문제는 더욱 어려워 보였다. 모택동은 처음에 속유를 지목하였다가 작전의 범위가 확대되자 임표를 지목하였다. 그러나 둘은 모두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특히 임표는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대한 우려를 노골적으로 표출하였기 때문에 고려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모택동은 8월부터 염두에 두고 있던 팡덕회를 추천하였고 확대회의는 팡덕회를 북경으로 불러 사령관직위를 맡기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개입문제에 대해 만장일치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4일 확대정치국회의를 열어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주은래는 이날 심야에 인도 대사인 파니카(K. M. Panikkar)를 불러 만일 미국이 38선을 넘는다면 중국은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sup>55)</sup>

10월 2일 모택동은 로신에게 한국전쟁 개입과 관련한 중국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스탈린의 개입요청을 받고 이미 개입의사를 담은 전문을 작성하였으나 발송할 수 없었다. 당 지도자들이 최종합의에 이르지 않은

53) "Telegram, Central Military Commission to Gao Gang and Deng Hua, 2 October 1950," *CCFP*, p. 161.

54)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p. 173.

55) "Zhou Enlai Talk with Indian Ambassador K.M. Panikkar, Oct. 3, 1950," Sergei N. Goncharov *et al.*, *Uncertain Partners*, p. 276. 정확한 시간은 3일 새벽 1시였다.

시점에서 선불리 긍정적인 입장을 밝힐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로신을 불러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개입이 곤란하다고 하였고, 로신은 10월 2일자로 이 내용을 스탈린에게 타전하였다. 이때 로신은 이 전문에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였다. 그는 중국지도부가 기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입장에서 갑자기 선회하여 개입이 곤란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러한 이유에 대해 국제적 상황변화, 한반도 전황의 악화, 그리고 영-미 블록으로부터의 압력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였다.<sup>56)</sup>

2일 모택동이 왜 한국전쟁 개입 불가입장을 로신에게 흘렸는지 명확히 드러난 바 없다. 다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긴박성을 고려하여 당시 중국의 입장을 소련대사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표명해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sup>57)</sup> 동시에 고려될 수 있는 요인은 바로 소련으로부터의 군사적 지원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 한국전쟁 개입은 소련의 지원없이 불가능하였다. 그런데 스탈린은 중국에 한국전쟁 개입을 종용하면서 이에 대한 지원은 언급하지 않고 있었으며, 오히려 한국전쟁에서 손을 떼려는 의혹을 질게 풍기고 있었다.

따라서 모택동이 보였던 유보적인 자세는 소련의 지원가능성을 타진해 본 것이거나 좀 더 많은 지원을 얻기 위해 취해졌을 수 있다. 왜냐하면 모택동은 로신에게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이 결정은 임시적이라는 것과, 스탈린과 상의하기를 원한다는 것, 그리고 필요시 주은래와 임표를 모스크바에 보내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는데, 이것은 스탈린과

56) "Ciphred Telegram from Roshchin in Beiding to Filippov(Stalin), 3 October 1950, conveying 2 October 1950 message from Mao to Stalin," in Alexandre Y. Mansourov, pp. 115-116.

57) Shen Zihua, "The Discrepancy between the Russian and Chinese Versions," p. 239. 특히 이 시점은 유엔군의 38선 돌파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개입을 공식화할 필요가 없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종의 거래를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sup>58)</sup> 이 같은 모택동의 유보적인 태도는 한국전쟁에 개입하기로 결정한 뒤 10월 7일 이 사실을 스탈린에게 통보할 때에도 나타났다. 그는 내부적으로 개입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에게는 지금 당장 병력을 보낼 수 없으며 얼마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만 언급한 채 주은래를 보내 협상을 하도록 유도하였다.<sup>59)</sup>

10월 4일 확대간부회의가 소집되었으며 4일 오후에는 팽덕회가 서북지역에서 날아와 회의에 참가하였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한국전쟁 개입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며 이날 회의 분위기는 반대파의 견해가 우세하였다.<sup>60)</sup> 모택동은 회의참석자들에게 한국에 파병할 경우 따를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말해보라고 했다. 반대파의 논리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sup>61)</sup> 첫째는 중국의 전쟁 잠재력, 즉 경제력의 열세였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등장한 반면 중국은 이제 겨우 농업과 산업력을 회복하는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대규모의 전쟁을 감당할 수 없었다. 둘째 군사력의 열세였다.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핵 보유국이었으며 공군과 해군력은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다. 한 예로서 인민해방군 1개 군단이 보유한 포는 198문으로서 미군 1개 군단의 1/10 수준에 불과하였다. 셋째 후방지역의 취약성이다. 중국공산당이 본토를 장악했다고 하지만 중국 각 지역에는 국민당 잔당들이 준동하여 지방정부를 괴롭히고 있었

58) Shen Zihua, "The Discrepancy between the Russian and Chinese Versions," p. 241.

59) Document 13 : Letter, Fyn Si (Stalin) to Kim Il Sung (via Shtykov), 8[7] October 1950, in Alexandre Mansourov, *CWIHP Bulletin*, Issues 6-7, pp. 116-117. 이 전문의 내용에 모택동이 스탈린에게 9월 7일 전문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으나 10월 7일을 잘못 타이핑한 것임.

60) 고강, 임표, 유소기, 진의 그리고 주은래가 반대파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다. 팽덕회와 섭영진은 모택동의 편에 섰다. Vladimir Petrov, "Stalin, Mao and Kim Il Sung," p. 26 ; Patrick C. Roe, *The Dragon Strikes : China and the Korean War, June-December 1950* (Novato : Presidio Press, 2000), p. 88.

61) Hai-Wen Li, "How and When Did China Decide?," pp. 90-92 ; Hao and Zhai, "China's Decision to Enter," pp.

다.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들은 중국에 대한 주요한 위협은 한반도가 아니라 대만에서 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이상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sup>62)</sup>

모택동은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았다. 다만 회의종료 직전 북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다음날 회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지도부가 미국과의 전쟁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크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군사적 충돌가능성을 철저히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10월 5일 스탈린은 정치국회의를 열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였다. 모든 정치국원들은 소련이 북한을 포기하더라도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결만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스탈린도 북한이 곧 궤멸될 것으로 믿고 있었으며 미군이 소련국경 지역에까지 다가오더라도 나가서 싸우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sup>63)</sup> 그리고 이 회의에서 합의된 최종 결론은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전쟁에 개입하도록 압력을 가하자는 것이었다. 정치국 회의 직후 스탈린은 모택동을 설득하는 전문을 보냈다.<sup>64)</sup> 스탈린은 이 전문에서 중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해야 할 이유로 첫째 미국은 현재 대규모의 전쟁에 대비되어 있지 않으며, 둘째 일본은 아직 군사적으로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셋째 중·소동맹은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중국을 보호해 줄 수 있으며, 넷째 한반도가 제국주의 국가들의 극동 교두보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반대로 참전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을 경우 중국은 대만조차도 회복하지 못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62) Shen Zhihua, “The Discrepancy between the Russian and Chinese Versions,” p. 240 ;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p. 182.

63) Jerrold L. Schecter, *Khrushchev Remembers*, p. 147.

64) 이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10월 8일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보낸 전문의 내용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Letter, Fyn Si(Stalin) to Kim Il Sung(via Shtykov), 8(7) October 1950,” Alexandre Y. Mansourov, p. 116.

### (3) 모택동의 전략적 계산과 개입 결정

전문이 도착한 시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의 개입을 촉구하는 스탈린의 전문이 모택동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가 없다.<sup>65)</sup> 분명한 것은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 결정이 10월 5일 모택동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먼저 모택동은 전날 회의에 뒤늦게 참석하여 발언권을 갖지 못했던 팡덕회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었다. 팡덕회는 회의 직전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직을 이미 수락하였고, 따라서 당연히 개입을 주도하는 모택동의 편에 섰다. 팡덕회는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기 원한다. 언제 잡아먹느냐는 그의 식욕에 달려 있다. 어떠한 양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한 뒤, 미국이 압록강에 도달할 경우 모든 구실을 찾아 중국을 침략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전쟁에 개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66)</sup> 또한 그는 한국전쟁 개입은 미국의 오만을 꺾고 국내 반동세력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sup>67)</sup> 설사 중국이 전쟁에서 패배하더라도 중국내전이 몇 년 더 연장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였다. 팡덕회의 열띤 주장으로 회의 분위기는 개입을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섰고 참석자들은 한국전쟁이 한반도에 국한된 전쟁이 아니라 장차 중국의 안보와 아시아 혁명에 연계된 전쟁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제시된 모택동의 설득은 그의 전략적 사고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그는 이웃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보면서 가만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중국이 위협할 때 소련이 가만있을 것이고 결

65) 스탈린의 전문은 10월 5일 발송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모택동이 확대회의에서 개입을 설득한 시점이 이 전문을 보기 전이었는지 보고 난 후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스탈린의 개입촉구 전문이 10월 5일 이전에 발송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hen Zihua, “The Discrepancy between the Russian and Chinese Versions,” p. 241.

66) Sergei N. Goncharov, *et al.*, *Uncertain Partners*, p. 180.

67)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pp. 183-184; 시성문, 조용전, 『중국인이 본 한국전쟁 : 판문점 답판』, p. 95.

국 “국제주의(혁명)는 헛소리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sup>68)</sup> 아울러 모택동은 장차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가해 올 수 있는 통로로서 대만, 인도차이나, 한반도를 지적하고, 현재 한국전쟁은 이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은 한반도가 아니더라도 대만과 베트남에서 언제가는 한 번 치러야 할 불가피한 것이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이 세 지역 가운데 한 곳을 미국과의 결전을 위한 장소로 선택해야만 하는데, 소련 지원의 용이성과 근접성, 그리고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한반도는 전쟁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대만과 베트남보다 중국에 더욱 유리한 여건을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한반도가 미국의 손에 넘어가면 중국은 약 1,000마일에 이르는 압록강 국경선을 수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지 않을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모택동은 중국의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한국전쟁은 중국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모택동이 한국전쟁에 개입하려는 동기를 갖게 된 데에는 중·소 관계의 개선, 아시아에서 중국의 지위 고양, 그리고 미·일 관계의 반전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었다.<sup>69)</sup> 또한 최근에는 ‘혁명적 민족주의나 모택동 전략의 ‘낭만적 성격’이 작용하였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실제 중국의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해 본 결과 이러한 요인들은 그다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모택동은 미국이 조성한 ‘위기상황에 따라 전쟁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하였고, 그의 결정은 가장 큰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에서 나온 결론이었다.

모택동은 미국과 군사적으로 대결해야 하는 문제를 놓고 팽덕회와 논의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첫째 미국이 한반도에서 장기간의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둘째 지리적으로 협소한 한반도에서 핵을 사용할 수는 없으며 중국에 사용할 경우 방대한 국토와 넓게 분포된 인구에 인

68) Hao Yufan and Zhai Zhihai, “China’s Decision to Enter,” p. 106.

69) Allen Whiting, *China Crosses the Yalu*, pp. 151-158.

해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점, 셋째로 한반도의 열악한 도로망과 북한 지역의 산악지대는 미군의 기계화부대 운용에 취약하며 화력의 효과를 제한할 것이라는 점이었다.<sup>70)</sup> 여기에서도 모택동의 개입결정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어느 정도의 승리 가능성과 함께 바로 전쟁의 제한가능성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월 7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한반도 통일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이튿날 미 제1기병사단은 38선을 돌파하였다. 8일 모택동은 중국인민혁명군사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으로 “동북변방군은 중국인민지원군으로 전환하고 즉각 한반도로 진입하여 한국 동지들을 지원하도록”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sup>71)</sup> 그리고 이날 저녁 모택동은 김일성에게 인민지원군의 개입사실을 통보하고 박일우를 심양으로 보내 팽덕회·고강과 함께 실무수준에서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하였다.<sup>72)</sup> 한편 팽덕회와 고강은 8일 아침 모택동의 아들 모안영을 대동하고 심양으로 가서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를 설치하였으며 제13병단의 주요지휘관들에게 최종적인 전투준비를 완료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날 저녁 이들은 북한에서 달려온 박일우를 만나 개입을 위한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하였다.

10월 9일 팽덕회는 안동(또는 단동)에 가서 현장을 답사하였다. 유엔군의 총 규모는 40만으로 이 가운데 전면에 배치된 병력이 10개 사단 13만명에 이른다는 정보를 입수한 팽덕회는 수적으로 적을 압도하기 위해 지원군의 규모를 증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이날 저녁 모택동에게 전문을 보내 “원래 우리는 2개 군과 2개 포병사단을 보내기로 계획하였으나 … 이제 원래 계획을 변경하여 모든 병력(4개군, 3개 포병사단 그리

70) Hao Yufan and Zhai Zhihai, “China’s Decision to Enter,” p. 107.

71) “Order, CCP Central Military Commission, ‘On the Formation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8 October 1950,” *CCFP*, pp. 164-165 ; Hai-Wen Li, “How and When Did China Decide?,” p. 92.

72) “Mao Telegram to China’s Entry in the War, Oct. 8, 1950,” Sergei N. Goncharov *et al.*, *Uncertain Partners*, p. 279.

고 3개 방공포병대대)을 압록강 남쪽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모택동은 이를 즉각 수락하였다.<sup>73)</sup> 팽덕회는 10일 저녁에 다시 모택동에게 전문을 보내 11일 북한의 임시수도인 덕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 조·중간 협조문제를 논의할 예정임을 알렸다. 이제 개입은 시간문제인 것처럼 보였다.

## 5. 소련의 군사지원 거부와 중국 지도부의 동요

### (1) 스탈린-주은래 협상과 소련의 군사지원 거부

모택동은 당 내부적으로 개입 방침을 확정하였지만 스탈린에게는 ‘조건부’로 개입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모택동은 10월 7일 스탈린에게 6개 사단이 아니라 9개 사단을 보내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면서, 그러나 파병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 ‘조만간’에 보내겠다는 단서를 달았던 것이다. 그리고 사절로 파견되는 주은래·임표와 함께 북한 지원문제, 특히 소련공군의 지원문제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모택동은 중국군의 개입여부를 불투명한 것으로 함으로서 주은래가 스탈린과의 협상에서 가급적 확실하고 많은 군사적 지원을 얻어 낼 것을 기대하였다. 스탈린은 모택동으로부터 전문을 받고 나서, 10월 1일 김일성이 보낸 지원요청 전문에 대한 답신을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이 전문에서 그는 김일성에게 미군에 대한 저항을 강화하고 포위망에서 탈출한 간부들을 중심으로 하여 예비대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sup>74)</sup>

73) “Mao Telegram, Oct. 11, 1950,” Sergei N. Goncharov *et al.*, *Uncertain Partners*, p. 280.

74) “Letter, Fyn Si(Stalin) to Kim Il Sung(via Shtykov), 8(7) October 1950,”

주은래는 중·소 군사협력문제를 마무리짓기 위해 8일 소련으로 건너가 10일 모스크바에 도착하였으며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있던 임표와 합류하여 이날 오후 흑해의 별장에서 휴가중인 스탈린을 만났다. 스탈린과의 회동은 오후 7시에 시작하여 이튿날 새벽 5시까지 계속되었다. 여기서 주은래는 중국 지상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하는 동안 얼마의 폭격기와 전투기가 지원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이미 스탈린은 중국이 7월 초 한만국경에 9개의 사단을 배치하겠다는 결정에 대해 동의하면서 중국군의 배치가 완료될 경우 124대의 전투기로 구성된 항공사단으로 엄호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한 적이 있다.<sup>75)</sup>

그러나 스탈린은 한반도에 배치될 중국인민지원군에 대한 공군지원 요청을 거부하였다. 그는 중국군 20개 사단에 대한 군사장비를 지원하고 본토의 방공임무를 담당할 수 있으나 한국전쟁에 개입하는 중국인민지원군에 대한 공중지원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2달에서 2달 반까지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소련 공군이 직접 개입할 경우 제3차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였다. 그러나 주은래는 소련의 공군지원이 없이는 개입할 수 없다고 버텼다. 스탈린은 주은래의 이러한 태도가 '공갈'인 것을 눈치라도 채 듯이 중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일주일 내로 북한은 붕괴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십만명의 북한 피난민이 만주지역으로 쏟아져 들어갈 것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만일 중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면 만주에 북한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sup>76)</sup> 스탈린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고 판단한 주은래는 11일 이러한 사실을 모택동에게 알리기 위해 스탈린과 공동으로 전문을 작성하여 타전하였다. 그리고 북경으로부터 추가적인 지시를 받기 위해 모스크바로 복귀

Alexandre Y. Mansourov, p. 116.

75) "Ciphred Telegram, Filippov [Stalin] to Soviet Ambassador in Beijing(N.V. Roshchin) with Message for Zhou Enlai, 5 July 1950," in Alexandre Mansourov, pp. 112-113.

76) Vladimir Petrov, "Stalin, Mao and Kim Il Sung," p. 27.

하여 대기하였다.

모택동은 12일 오후 이 전문을 접수하였으며 소련의 공군지원이 없이 한국전쟁에 개입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지금까지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은 소련으로부터 충분한 군사적 지원이 제공될 것이라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소련공군의 지원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었다. 심양에서는 개입이 결정되면서부터 공군지원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고 팡덕회는 9일 전문을 보내 지원 가능한 폭격기와 전투기의 규모, 공군을 통제하는 책임 소재, 그리고 언제부터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하고 있었다. 모택동은 주은래의 전문을 접수하자마자 팡덕회와 고강에게 연락을 취해 한국전쟁 개입을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을 즉각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북경으로 올 것을 지시하였다.<sup>77)</sup>

중국이 모든 군사적 준비를 중단한 채 소련의 공군지원이 없이는 개입할 의사를 보이지 않자 스탈린은 북한을 포기하려고 하였다. 그는 12일 김일성에게 전문을 보내 “중국은 재차 파병을 거부하였음. 그러므로 가능한 한 단시일 내에 조선을 떠나 북쪽으로 퇴각할 것”을 통보하였다.<sup>78)</sup> 이 무렵 중국 길림성 통화시에는 최용건의 지휘하에 동간변사처, 즉 동북개간사무처가 설립되어 일종의 후방사령부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임무는 부대재편성 및 창설, 군사훈련, 후방 보급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었지만 북한이 전쟁에서 패할 경우 망명정부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었다.

## (2) 중국지도부의 동요와 한국전쟁 개입 강행

13일 오후 팡덕회와 고강이 북경에 도착하자 정치국 긴급회의가 소집되어 소련의 공군지원이 없이도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77) “Mao Telegram Countermanding the Order to Send the Thirteenth Army to Korea, Oct. 12, 1950,” Sergei N. Goncharov *et al.*, *Uncertain Partners*, p. 281.

78) Evgueni Bajanov, “Assessing the Policies of the Korean War, 1949-51,” p. 89.

팽덕회는 소련이 공군지원을 거부한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사령관직을 내놓겠다고 위협하였다. 모택동은 팽덕회의 사임을 적극 만류하였고, 비록 초기단계에서 공군지원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소련은 중국인민지원군에 대한 무기와 장비를 제공하고 중국본토의 방공을 담당해 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조만간에 공군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비록 당장 공군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한국전쟁에 개입하는 것이 여전히 유리하다고 설득하였다. 결국 이들은 “참전해서 얻는 이익은 극히 큰 반면 참전하지 않음으로 받을 손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sup>79)</sup> 팽덕회는 즉시 등화를 비롯한 인민지원군 지휘관들에게 연락하여 즉시 한국전쟁에 개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두르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모택동은 13일 주은래에게 전문을 보내 소련의 군사적 지원 규모와 차후 공군지원의 가능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도록 지시하였다.<sup>80)</sup>

결국 소련의 공군지원 불가입장은 모택동의 한국전쟁 개입의지를 바꾸지 못하였다. 그는 14일 모스크바에 있던 주은래에게 다시 전문을 보내 한국전쟁에 개입하는 것이 여전히 유리하다고 하면서 10월 19일 압록강을 건널 것임을 통보하였다.<sup>81)</sup> 스탈린은 다시 김일성에게 전문을 보내 중국이 부족한 장비에도 불구하고 개입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지난 전문을 통해 지시했던 만주 지역으로의 철수를 즉각 보류하도록 지시하였다.<sup>82)</sup> 스탈린은 이러한 모택동의 결정에 감탄을 표시하고 18일 중국으로 귀국하는 주은래를 통해 중국인민지원군에 대한 장비지원을 늘이는 한편 차후 소련의 공군력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79) 시성문, 조용전, 『중국인이 본 한국전쟁 : 판문점 담판』, p. 97.

80) Hai-Wen Li, “How and When Did China Decide?”, p. 96.

81) “Mao Telegram to Zhou Enlai in Moscow re the Current Status of the War, Oct. 14, 1950, 0300.” “Mao Telegram to Zhou Enlai in Moscow re the Plan of Attack, Oct. 14, 1950,” in Sergei N. Goncharov *et al.*, *Uncertain Partners*, pp. 282-284.

82) “Ciphered Telegram, Fyn Si (Stalin) to Kim Il Sung(via Stikov), 13 October 1950,” in Alexandre Y. Mansourov, p. 119.

유엔군이 평양을 탈취하기 위해 준비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모택동은 한국전쟁 개입 준비를 더욱 재촉하였다. 모택동은 15일 아침에 팡덕회에 전문을 보내 17일에 선발대로 하여금 압록강을 도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팡덕회는 16일 안동에서 사단장급 이상 지휘관을 소집하여 전의를 고취시키는 한편 그날 밤 선발대로 편성된 제42군 예하 1개 연대로 하여금 압록강을 도하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공군지원 부재는 일선 지휘관들의 우려를 자아냈고 급기야 개입 직전에 이러한 우려는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안동에서 선발대의 도하를 지시한 팡덕회가 병참문제를 살피기 위해 심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고강과 함께 중국인민지원군의 주요 지휘관들로부터 한국전쟁 개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전문을 받았다. 그 내용은 인민지원군이 적에 비해 무기면에서 열세하며 동계작전시 지면결빙으로 방어진지를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이 전면공세를 감행해 올 경우 버틸 수 없으며, 따라서 개입시기를 내년 봄으로 연기하자는 것이었다.<sup>83)</sup> 팡덕회는 모택동에게 이러한 내용을 즉각 보고하였다. 모택동은 최종 명령을 유보한 채 주은래가 복귀하는 18일까지 기다려 보기로 하였다. 그리고 팡덕회와 고강에게 일단 선발대를 예정대로 보내도록 지시하는 한편 중국인민지원군에 대해서는 18일 공식적인 명령을 하달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아울러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이들을 북경으로 불렀다.

18일 모스크바에서 복귀한 주은래는 공산당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소련의 지원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실을 명확히 해 주었다. 첫째 소련은 중국인민지원군에 대한 군사장비를 제공하고 탄약을 지원할 것이며 중국영토에 대해서는 공군을 지원하여 영공방어를 담당할 것이다. 둘째 중국인민지원군의 작전에 대한 소련의 공군지원은 비록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차후에는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이로써 소련의 군사적 지원에 관한 문제는 일단락 되었다. 한편 일선지휘관들이 제기한 개입 연기안은 고려될 수 없었다

83) Michael Hunt, "Beijing and the Korean Crisis," p. 463.

북한은 이미 신속한 미군의 진격으로 인해 공황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유엔군은 수일 내로 평양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만일 지원군의 개입이 더욱 늦어진다면 그 만큼 불리한 상황에서 싸워야 할 것이다. 이를 우려한 모택동은 19일을 개입 일자로 결정하였고 18일 오후 9시 등화와 중국인민지원군 지휘관들에게 19일 저녁부터 압록강을 도하하도록 명령을 하달하였다.

모든 것이 결정된 것으로 보였던 10월 16일, 중국인민지원군 선발대가 팽덕회의 명령을 받고 막 출발하려 하던 시기에 제기된 중국인민지원군 지휘관들의 개입 연기 주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택동은 왜 이들의 반발에 대해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못하였으며, 왜 모스크바에서 복귀하는 주은래를 기다려야 했는가? 왜 이들은 13일 정치국 긴급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18일 막후에서 또 한번의 최종결정을 내려야 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소련의 군사적 지원이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건이었음을 또 한번 입증한다. 소련의 지원 규모와 범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선지휘관들 뿐 아니라 모택동 자신도 한국전쟁 개입에 대해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이들이 진정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모스크바에서 막 귀국한 주은래로부터 소련이 당장 군사장비를 지원할 것이며 장차 공군지원도 가능할 것이라는 '확실한' 한 마디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 조건은 절대적으로 한국전쟁의 제한가능성과 함께 소련의 군사적 지원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 6. 결 론

모택동의 한국전쟁 개입목표는 무엇이었는가? 실제로 모택동은 한국전쟁

에 개입하면서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한국전쟁에 개입한 이후 전쟁의 상황에 따라 '6개월간의 방어'로부터 '미군에 대한 완전한 승리'에 이르기까지 크게 변화하였다.<sup>84)</sup>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전쟁에 개입하기 직전 모택동은 한반도 공산화라는 절대적 목표가 아니라 북한 지역에 최소한의 완충지대를 확보한다는 제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그것은 잘 될 경우 전쟁이전의 상태(status quo anti-bellum)를 회복하는 것이었다.<sup>85)</sup>

모택동이 이처럼 한국전쟁 목표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개입시 승리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중국지도자들은 개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10월 초 개입 여부를 둘러싼 논의에서 나타난 반대파의 월등한 우세, 소련의 공군지원 거부시 모택동의 3일에 걸친 장고와 망설임, 그리고 무엇보다도 10월 17일 군부의 반발은 중국이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모택동이 승리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었다면 왜 그는 한국전쟁에 개입하여야 했는가? 그가 굳이 한국전쟁에 개입함으로써 얻고자 한 전략적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완충지대를 확보함으로써 장차 미국과의 전쟁시 잠시 숨쉴 틈(breathing spell)을 갖기 위한 방어전략의 일환이었다. 모택동의 전략은 주변국을 완충지대로 만드는 것이었으며, 한반도보다도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던 호지명의 인도차이나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확고한 것으로 믿었던 한반도의 완충지대가 미군의 진격으로 붕괴되어가자 모택동은 이를 저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모택동의 한국전쟁 개입 목적은 완충지대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확보했던 완충지대를 원상태로 '복원'하는 것이었다.

84) Hai-Wen Li, "How and When Did China Decide?", p. 98.

85) T. V. Paul, *Asymmetric Conflict*, p. 91.

둘째 아시아적 수준에서 미국의 전략적 포위를 거부하고 양면전쟁의 가능성을 회피하고자 함이었다. 이미 제7함대가 대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를 양보할 경우 중국은 장차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에서 전략적으로 극히 불리한 위치에 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국의 점령은 미군으로 하여금 두 방향, 즉 동으로는 대만, 남으로는 베트남에서 [동시에] 중국을 공략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sup>86)</sup>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의 양면전쟁을 회피하기 위해 결코 한반도를 내어줄 수 없었다.

셋째 장차 이루어질 미국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었다.<sup>87)</sup> 당시 중국지도자들은 한국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경우 전략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이지만, 개입할 경우에는 한반도에 전투부대를 보내는 것만으로 전쟁의 확산을 방지하고 중국의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이들은 제한적인 공격으로도 중국의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고 전쟁의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킴으로서 미국에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일종의 선제 공격(preemptive attack)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결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가하기 위한 제한된 목표하의 공격이라 할 수 있다.<sup>88)</sup>

지금까지 고찰한 역사적 사실들에서 우리는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이 첸지안의 ‘혁명적 민족주의’ 또는 장수광의 ‘군사적 낭만주의’(Military romanticism)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이들의 주장을 철저히 반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았다. 한국전쟁 개입결정 과정 어디에도 한반도 혁명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한국전쟁에 개입한 정치적 배경과 중국지도자들이 추구했던 전쟁의 목표,

86) Sergei N. Goncharov *et al.*, *Uncertain Partners*, p. 181.

87) Michael Hunt, “Beijing and the Korean Crisis,” p. 464 ; T. V. Paul, *Asymmetric Conflicts*, p. 91.

88) T.V. Paul, *Asymmetric Conflicts*, p. 13 ; John Mearsheimer, *Conventional Deterrence*, pp. 53-58.

그리고 전쟁의 성격은 서론에서 제시했던 두 개의 분석틀, 즉 혁명전쟁과 국제전 가운데 명백히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을 '혁명' 패러다임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며, 기존의 '안보' 패러다임을 통해 보다 적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주제어 : 중국, 한국전쟁, 군사전략목표, 중국의 개입, 모택동

K C I

<ABSTRACT>

## China's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and Its Military Strategic Aim

PARK, CHANG-HEE

This dissertation analyzes China's decision making process for the intervention to the Korean War, and answers to the questions of "what was the political aim of the intervention that the Chinese leaders had pursued?" and "what was their strategic calculation?"

Recently, scholars have argued that Chinese intervention to the Korean War aimed at "communist revolution" on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the historical documents opened to the public by Chinese and Russian Governments in the 1990s. Chen Jian argues that after the establishment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Mao Zedong tried to recover China's status by supporting communist revolution in Asia, and that his motivation for the intervention to the Korean War was "revolutionary nationalism" to revive Sino-centrism. Zhang Shu Guang also insists that Mao's "man-over-weapon doctrine", so called "military romanticism", was the main motive for Chinese intervention, and China's aim was to achieve perfect victory over the US forces.

However, when I carefully examined the decision making process for the intervention, I cannot agree on their contentions. If their arguments are right, Chinese leaders should have had confidence of military victory entering the Korean War and should have set an "absolute aim" to communize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defeating the US forces. However,

Mao and his companions was skeptical about victory over the US, and most of the leaders opposed to intervention. As shown in Mao's telegrams to Stalin on 2 October, China was in no situation to intervene without Soviet's military support, and the fact that the Soviet didn't provide any weapons to China at that time meant Chinese Army was not prepared to enter the Korean War. Most importantly, the repulsion of military authority in Chinese People's Volunteers, which happened 17 October right after Mao had made a decision to intervene, proved that China's intervention was unreasonable and even impossible.

Of course, we should not exclude the motive of revolution in the process of Chinese decision making because China followed the line of Marx-Leninism. However, it would be nonsense to accept that China tried to revive its Sino-centrism through communist revolution in the Korean Peninsula despite external security instability as well as internal political and economic weaknesses. As Michael Hunt indicates, because their arguments are based on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public documents, they are inclined to overestimate Mao's ideological motivation and political propaganda.

As a result, Chinese intervention to the Korean War was firstly to establish buffer-zone in the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further to prevent a possible future attack from the US by limited preemptive attack to the US forces. That means that China's motivation of the intervention was resulted from security concerns, not from revolutionary nationalism.

Key Words : China, Korean War, Strategic Aim, Chinese intervention, Mao Zedong